

익산시, 악취 대응방안 마련 고심

간부급 공무원 야간순찰 감시 철저히 지시... 위반 시 강력처분 예정

익산시는 유관부서별 악취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 해소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야간 특별기동반 운영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장 주재 하에 악취 유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청소지원과, 축산과,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분야별 악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는 '익산악취2' 시스템 상의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악취

유형 및 주요 발생지역,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악취 특별기동반은 부시장의 지휘 하에 국·단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3인 1조의 근무조가 야간 시간대 도심권 및 주요지역의 악취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제1·2산단과 신재생지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지역을 순

찰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 감시에 나선다.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는 시스템 상의 측정값 증가 시 또는 악취발생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악취기동반은 악취배출사업장을 순찰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순찰 중 체감악취가 높을 시 악취상황실과 연계하여 악취포집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단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현재 170여 건의 악취를 포집

하였고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산단의 사료공장은 조업 정지,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2산단의 화학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절기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업정지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와 군산안경사회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맞손

시-안경사회 업무협약... 일회용렌즈 최대 50% 할인

군산시와 군산안경사회(회장 최순웅)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은 군산안경사회 안경원에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일회용렌즈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정착 시키기 제공되는 것으로, 이는 9월 출시되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안경회에 서 자체추진하는 군산사랑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순웅 군산안경사회 회장은 "그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에게 빛이 되어주었으며, 받은 사랑을 조

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도 시민들이 함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입준 군산시장은 "여러움을 함께 극복하고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모바일 상품권도 안경사회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랑의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2일 출시되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에서 상품구매와 은행방문 없이 환전까지 가능해 기존 종이 상품권에 비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3.5만세운동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 추진

만세운동 조형물 제작·태극기 마당 등 조성

군산시가 100년 전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날을 기억하다'는 일본이 민족말살, 인권유린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강제

징용 관련 배상관계를 문제 삼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 3.5만세운동의 상징인 구암역사공원에 조성된 3.5만세운동길,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과 더불어 구암역사공원을 향한 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의 발상지로서 군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3.5만세운동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만세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일반시민을 주인공으로 한 만세운동 조형물을 제작하고, 만세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주제로 태극기 마당 등을 조성하며, 기념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내 사업을 완료해 그간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건립한 3.1운동 기념관과 기념탑 등 각종 조형물, 3.5만세운동길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일항쟁의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100년 전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의회,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새만금지역 입주 적극 지원 밝혀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새만금지역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ICT기업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억명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가치를 표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가 될 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여건이 두루 갖춰져 있는 새만금에 유치해 새만금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은 원활한 전력공급, 토지이용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이터센터 확장 가능성, 데이터센터 발생열을 이용한 예코시스템구축, 국가간 광케이블 인터넷 연결망 구축 등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입주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데이터센터가 들어 서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군산시는 물론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정치권과 함께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데이터센터 새만금 입주 시 건설과정에서 완공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국화축제 준비 현장근로자 격려

정현을 시장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를 방문해 40도를 넘나드는 하우스 안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직원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품질 좋은 국화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앞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해 895㎡ 규모의 스마트 하우스를 신축하고 대형 환풍기와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온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 건설 본격 착공

3.3㎡당 700만원대 분양가 예상

익산시는 그간 지지부진해 오던 평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화지구 LH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식 착공서류가 지난 8일 LH로부터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화지구 LH아파트 건설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자인 LH에서 토지 보상 및 철거가 98% 완료되었으나 잔여 1세대 인도 소송의 이유로 본격적인 착공을 1년여간 미루고 있었다.

익산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구도심 지역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춘석 의원의 협조를 얻어 LH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LH에서는 지난 8일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을 위한 착공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아파트를 완공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3.3㎡ 당 최고 공급된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760만원, 정주 모충동 주거환경개선지구 760만원을 감안하여 7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지구 LH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1027세대이며 분양 아파트는 819세대(전용면적 59㎡ 128세대, 74㎡ 277세대, 84㎡ 414세대), 임대 아파트는 208세대(전용면적 39㎡ 96세대, 51㎡ 112세대)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